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65호 현대불교

29

2011년 12월 7일(음 11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허공에서 그냥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아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물에 가면 주해신이 돼 주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산에 가면 주산신이 돼 주고, 또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 주고 명이 짧아서 애를 쓰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아파서 애를 쓰면 약사가 돼 주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받을 때는 관세음이가 돼 주고, 자기 한마음 속에서 다 천차 만별로 나가는 겁니다. 갈래갈래. 이거는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체가 없는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없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 가지고는 항상 극복하기 어렵죠. 보이지 않는 걸 무시하신 안 되죠.

오늘 내가 여길 나오는데 우리 스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멍이를 잡아먹었는데 다리가 그냥 금방 호물호물하더니 구렁이같이 돼 버려서 영 길을 못 걸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 공부 안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죠. 그건 보이지 않는 데 일어나니까 내가 보이지 않게 보살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돼야, 또 그만한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가 없는 마음은 한 사람을 살리려면 저승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구요. 저승이 멀다 하지만 저승도 이 자리 이승도 이 자리, 지옥도 이 자리 천당도 이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아주 멀고 멀어서 그 도리를 모르는 분들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힘이 없이 하는 보살들은, 얼른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의 화현이란 말입니다.

법당에 가면 부처님 모셔 놔죠. 부처님 모셔 놓고 그 옆에 문수 모셔 놓고 보현 모셔 놔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처구요. 생각을 했다 하면 문수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 한 몸 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이예요.

'이 모두가 고가 아니다. 사람에게 고는 없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고난을, 모든 것을 극복한다.' 이러한 것도 모두가 한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리를 웬만큼 누가 이렇게 이끌어 주면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지지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거는 다 사실 겁니다. 아마, 이 몸뚱이가

소중하죠. 부모에게 받았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왔고 그런데 소중한 걸 잃습니까? 소중한 것을 진짜 소중한게 만들지 않고 이름이나 형상만 우려보면서 이 근중중 몸뚱이를 그냥 결레같이 내버리는 격이죠. 모두가.

그리고 자손들을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제사를 지내는 데 우주떡 하나에 다가가 과일 세 가지를 한 접시에다가 놓고 향, 초, 흰 꽃, 위패하고 천후문 쓰고 큰 그릇에 청수 한 그릇만 떠 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것도 없어도 되는데 방편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그건 자손들에게 교훈도 주고 조상의 은혜도 알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영혼

은 삼존(三尊)이 항상,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조상이 몰라요? 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아마 '이 쾌실한 놈!' 그러고 뒤돌아서서 후적후적 갈 거예요. 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도, 비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풍부해지고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돼서 하듯해 요만한 벌레, 요만한 풀 한 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해도 그렇고 정치를 해도 그렇

고 뭐를 해도, 내가 손수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릇대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릇대로 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못 보더라도 사람의 차원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시장에 가서 그릇 좀 보세요. 그릇이 천차만별로 있죠? 종이에다가 밥 담습니까? 간장밖에 더 담습니까? 접시를 봐도 접시는 접시대로 답을 물건이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큰 바다가 돼라. 일체를 다 삼키고 토해 내서, 큰 바다에 한 정수의 물로써 요만한 거 하나 버리지 말고 다 먹일 수 있게, 그 작용을 응무로써 해 바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는 이름해서 여러인 것이다.' 한 겁니다. 내가 요렇게 생각해서 얘기할게요.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아빠!" 하고 부르면



그림 · 최주현

아, 금방 아빠가 되죠. 그런데 또 아내가 "어보!"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죠. "애, 아무개야!" 그리고 안방에서 부를 땐 "에,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지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고 지목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다 이거죠. 없는 것이 부처다.

저는 절대로, 실험도 안 해 보고 여러분한테 말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 따라 모두 실천으로 옮기면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모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그저 길만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 길까지 가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대신 죽어 주고 아파 주고 깨쳐 주고 잠을 자 주고 밥 먹어 주고 똥 싸 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통 편안하게 누고 밥 편안하게 먹고 잠 편안하게 자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여러분이 통 못 뉘서 편안치 못하면 나 역시 편안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피장파장이 돼 버리고 말았죠. 편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피장파장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아주 귀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부처님은 여러분의 믿을 씻어 주는 바로 뭐라고 이름지어야 될까요? 믿을 씻어 주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울었어. 너무 울었다고요. '당신이 고귀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신은 쓰레기 치우는 사람밖에 안 되니 이게 무슨 일이나!'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고귀하지도 않고, 허허하... 나 있는데 그냥 있고 저 사람들 있는데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나도 없고, 다 그냥 피장파장이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만 극복하라는 게 아니예요. 모두 더불어 같이 극복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생

30면으로 계속

#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칭

\*틈메꾸기

\*도장작업 2회

\*완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원목 온돌마루

강화마루

필름온돌

전기온돌

밖은세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 닥쳐오는 대로 근본에다 그냥 내던져서 태워버려야

29면에서 계속

명들도 다 한테 합쳐야 되기 때문에 불성인 주인공에 '너만이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많으면 그냥 마음으로 딱 동글러서 하나로 묶어서 거기다 그냥 내던져서 태우세요. 거기다 날아서 태우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요. 닥쳐오는 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국난 극복도 될 수 있겠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데 마음과 마음으로 다 퍼져요. 이젠 자동적이예요. 퍼져서 퍼져서 퍼져서 이거는 다... 어느 나라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그 나라에는 고난이 좀 더 올 거고, 또 거기서 잘하면 고난이 덜 오고, 더 오고 덜 오고 이렇게 연방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라는 얘기도 자기가 사는 대로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세요. 꿈을 잘못 꿴다고 '아이고, 이거는 어떡하면 좋을까?' 하지 마시고요. 꿈을 꿴더라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뭐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으세요. 내 마음이 영이라면, 체가 없다고 한다면, 영을 영에다가 수만 명을 갖다 집어넣어도 영이죠. 갯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해결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마음이 영이니까, 체가 없는 거니까. 체가 없는 데 다 같이 들어가서 할란하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정말 강도질을 하려고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바지를 제관색으로다가 아주 그냥 싹 빼서 입었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 남이 겁나게 왜 그러하고 들어와? 그냥 같이 나누어 쓰자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냅을 잃고 물끄러미 쳐다봐요. '아, 앉아요. 난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이거나 가져가오.' 그리고 시계하고 돈 얼마 있는 거 하고 주니까 날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요. '인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없으면, 정히 죽었으면 낮에 나한테 와요.' 그랬어요. 그 뒤에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짓 하는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한 번 보시고 마음 한 번 진실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 그만큼 상대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도님들 중에 선생님께 계시는데, 가르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집어넣어 가면서 만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무난하게 아주 잘 자라고 간다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뭐 어찌고 저찌고 해도 그 애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자기를 지킵니다. 내버리니까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너만이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내버리니까 지키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어, 네가 지키니까...' 하고 말죠. 옛날에요, 절에는 번소가 저 아래쪽에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밤에 스님이 번소를 가시다가 돌부리에 차여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애!" 하고 호법신을 부른 거예요. "너, 왜 나를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아이, 가시기 전에 좀 귀뽀를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넘어지기 전에 말이예요.

여러분도 벌써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나한테 뭐가 닥친다든가 내가 일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된단가 뭐, 감이 오

는데 밤을 굶으면 어쩔고... 한 철 살다가, 캄캄 왔다가 가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따가 죽는대도 회한이 잘될 테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따나. 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뭘 걱정을 하나. 여기 자기 주인이 있는데, 네?

자기 주인이 다 할 일이지, 주인이 다 돌볼 것인데 종이, 우리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그러죠.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시자가 뭘 그렇게 아단입니까. 그래 얼른 쉽게 말해서 주인한테 '주인님' 아니면 '큰스님'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만저만 한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냐?" 그러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속의 참자기는 큰스님이 되고 또 거족의 자기 몸통이는 시자,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한 손가락으로도 그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난이 어떻느니 뭐 세태가 잘못됐느니 뭐 어찌느니, 이거 전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말입니다. 각자 전부 자기네들 탓이예요.

신도님 중에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자기 자리를 뺏기고선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 도리를 알고 참 지극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은 살면서 힘도 안 들어요. 힘이 뭐가 들어요? 삶이 그냥 생활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나 지금 비행기 타고 가. 아무 일 없게 하는 것도 너야.' 그러면서 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다 가서 무사히 내렸으면 '야, 무사히 내리게 해 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리는데 뭐가 어려우나 이겁니다.

그래서 난 우리 스님네들더러 '너는 요렇게 잘

이 달라졌구나. 내가 다시금 사람이 돼서 아버지 보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때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아주 신나서 갔어요. 도살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지금 의사한테 가서 주사를 맞으면 그냥 안 아프듯이,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소가 했다고 할까요? 도살장에 한번 가 보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른 소들도 있고 그래요. 난 구경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야, 나를 끌고 다니는 내 뿌리가 있구나. 모두가 다 뿌리가 있지 뿌리 없는 나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뿌리를 믿어야 되겠다.' 하세요.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꼭 그렇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꼬아진 사람도 꼭 퍼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더러 그래요. "스님, 머릴 잘라서 신을 삼아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거냐. 내가 전 것들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전 것들하고 내 전 것들하고 같이 한테 합쳐지니까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다. 그냥 부처님이 하셨다고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에 그렇게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묘법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도.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도.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할까요?

그러면 오늘 국난 극복과 고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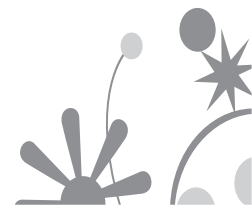
대중: 예.

큰스님: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국난도 없앨 거고 재난도 없앨 거고 생활 속에서도 편안하고 스무드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내 종교 내 종교 이렇게 해서 마음으러라도 싸울 생각 하지 말고 비난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떤 스님네들, 어떤 종교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어도 이것은 사람이 그런 잘못이 없다면 카질 수가 없으니까, 지혜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물이 한군데 고여만 있으면 썩으니까 저것이 바깥으로 튀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다 좋을 것을, 그냥 포집해서 뜬고 그냥 '저놈은 저렇게 이놈은 이렇고' 이라고 포집으니까 그게 뭐니까? 얼마 살다가 가면 또 바뀔 걸 말입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1998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도.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풍부해지고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 정화돼서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요만한 풀 한 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그러면 그 감 오는 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서서는 조치를 취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살아 주지 않아요. 대신 해 주지 않아요.

부처님이 이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리와 더불어 가르쳐 주신 삶의 뜻을 정말이지 진짜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면, 부모가 그렇게 진짜로 믿고 그렇게 잘 사니까 자식들도 아주 잘돼요. 그런 사람으로, 오기만 해도 '아이구, 오셨어요?' 이렇게 되고 아무 저게 없어요. '너무 빈 지가 오래 돼서 버려 왔죠.'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이 언짢은 일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네들이 닦아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다니는 길만 따지 마시고 허공에서 우리가 그냥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을 닦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가 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래요. 아, 세상에 이따가 죽으면 어쩔고 내일 죽으면 어따나 이거야. 또 오늘 저

이건 힌트보다 드리는데요, 우리 주지스님이 자기 있지만, 언젠가 어떤 신도가 집을 내뺏기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저녁을 굶었다고 그러면서 육담매나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쌀 두 가마 있는 거하고, 그때는 연탄 땀 땀 연탄 땀 거하고 그냥 다 쥐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쥐 버리면 내일 아침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뭘로 하나냐고 해서 '아, 굶으면 어쩔고 먹으면 어따나. 내 재주껏 해 보라. 얼러 다니는 거는 공평해서 못써. 부처님이 계시다면 갖다 줄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안 갖다 줄 거니까 알아서 할 거지, 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쥐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근 12시가 됐는데 터덕터덕 하고 차에다 누가 쌀 두 가마를 싣고 왔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권투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거나 하지 들이뺨 버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저 신정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못했으니까 죄를 지었고 너는 요렇게 하나씩 죄를 짓고, 너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조건 마음을 내 줘라, 무조건! 다 몰라서 죄를 짓는 거지. 알면 죄를 짓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요. 죄라고 이름을 지어 봤으니까 죄죠. 그러니까 업도 업이라고 해 봤으니까 업이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뿐이예요. 그러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이나 모습이나 권리나 마음의 지혜나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살다가 개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죠.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보면 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가 돼서 '아버지! 나야 나야.' 하고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이 없더라. '음매 음매' 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부르고 애원해 봐도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그 소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모습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나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